

통영과 한려수도의 발전전략과 미래비전 -통영의 역사&문화 자원과 남해안 축제의 시너지 효과-

Development Strategy and Future Vision of Tongyeong and Hanryeosudo -Synergies Effectiveness South Coast Festival and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Tongyeong-

우주호¹

Woo, Ju-Ho¹

요약

현재 통영시 조선산업 클러스터는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정일반산업단지, 덕포일반산업단지, 법승일반산업단지, 미륵도조선단지, 안정국가산업단지의 1, 2단계 확대개발 등이 있다. 이처럼 통영시는 이제 조선업의 호황에 힘입어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조선산업의 확장과 도시 기반시설 인프라의 개발로 격동의 시대에 들어섰다.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영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통영의 도시계획의 역사와 조선산업의 현황과 미래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어 : 통영의 역사 문화 자원, 남해안 축제, 한려수도, 여수 EXPO, 남해안 관광벨트

Abstract

Currently, shipbuilding industrial cluster in Tongyeong City includes, the Anjeong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njeong General Industrial Complex, Deokpo General Industrial Complex, Beopsong General Industrial Complex, Mireuk Island Shipbuilding Complex, are the first and second stage of expanded development of Sanjeong National Industrial Complex, etc. As such, Tongyeong City entered into a period of turbulence by the expansion of shipbuilding industry, which is vital to the marine eco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the urban infrastructures due to the booming of shipbuilding business. Therefore, the future vision of the Tongyeong for the ecologically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suggested.

In this article, the urban planning history, current status of shipbuilding industry and development strategy of Tongyeong will be suggested.

Keyword :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Tongyeong, South Coast Festival, Hanryeosudo, Yeosu EXPO, South Coast Tourism Belt

¹ Research Institute for Land and Environment
e-mail : apollo98@yahoo.ac.kr

Received(January 24.2013), Review (February 11.2013), Accepted(June 30.2013)

1. 들어가면서

우리는 전국을 산골짜기라는 뜻의 "방방곡곡(坊坊曲曲)"이라는 말로 쓴다. 그러나 일본은 전국을 바다, 항구라는 뜻의 "진진포포(津津浦浦)"라고 한다. 해양지향적인 표현이다. 세계경제는 평균 3.5% 성장하는데, 물류산업은 4.5%성장하고 있다. 물류의 성장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보다 빠르다. 우리의 해상 항로는 세계 "메인 트렁크(Main Trunk)"에 있다. 한마디로 미국-일본-한국-중국-동남아-유럽으로 가는 항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크게 보면 유라시아 대륙의 대표적인 부동항이다. 유라시아 대륙에는 어는 항구가 많다. 그래서 한반도를 유라시아의 관문이요, 부두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력(Sea Power)은 세계 10위권, 해양관련 산업은 국내총생산액(GDP)의 5.4% 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해양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천혜의 지정학적 잠재력과 특성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해 해양관련 산업으로 GDP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경제의 새 성장동력을 해양 관련 산업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인 남해안 개발은 시대적 명제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남해안이 동아시아의 새 경제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 경제 체제가 야기한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남해안 개발이 요구된다. 특별법 마련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남해안 프로젝트는 차질 없는 추진만이 남아있다. 남해안 프로젝트 선벨트(Sun Belt)의 중심에 보석 같은 통영이 있다[1].

국방, 예술, 수산, 관광. 이 복잡하고 동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한 곳에 밀집해 있는 곳, 이들이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충돌 없이 공존하는 곳은 통영뿐이다. 섬과 섬이 꼬리는 문 한려수도의 수려한 절경이 펼쳐진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은 예술가적 상상을 키워준 빼어난 풍광과 수산업과 조선업 등 풍족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한국의 대표적 예술가를 키워냈다. 작곡가 윤이상, 소설가 박경리, 시인 유치환, 김춘수, 희곡작가 유치진, 시조시인 김상옥, 화가 전혁림 등 수 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예향(藝鄕)이다.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이 있다 보니 승전무(勝戰舞) 같은 "국방예술"을 비롯하여, 나전칠기, 통영갯, 소목, 두석 같은 관청수공업이 발달했다. 1604년 통제영이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육방이 설치돼 군수품, 관수품, 민수품 등 다양한 수공업품이 생산되었다. 12공방과 120여 채나 되는 관아건물들이 있었다. 통영오광대, 남해안 별신굿 같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가 가장 많이 밀집된 곳이 이곳 통영이다. 군사(軍事)와 예술이라는, 언뜻 서로 조화될 것 같지 않는 양자가 절묘하게 결합해 예부터 예향(藝鄕)의 본거지로 꼽혔다[2].

통영이 예향(藝鄕)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 통제영과 통영수산업의 사회경제적 토대이다. 수많은 통영의 예술인이 외국유학을 떠날 수 있는 배경은 수산업으로 형성된 진취적 기질과 물질적 풍요가 바탕이 된 셈이다. 이렇듯 통영의 역사와 문화라는 것도 모두 어업에 종사하며 삶을 일궈 온 통영사람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 배태한 것이다. 즉 전통시대에 뛰어난 수군이자 노련한 어민들이었다는 사

실은 곧 이곳 통영의 일관된 역사로서 해양적 문화전통에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3].

이 곳 통영에 위치한 "굴수하식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대한민국 식탁에 오르는 굴의 80%가 생산된다. 굴 껍데기를 까는 여성 노동력, 굴 양식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고 판매하는 이들, 전국적으로 굴을 내 보내는 유통관계자들, 게다가 굴을 조리해 파는 음식점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통영에서만 무려 4만여 명이 굴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그만큼 굴은 통영 경제에 절대적이다.

굴의 종 다양성 소멸은 두말할 것 없이 환경오염 탓이다. 실제로 미국FDA는 매년 조사관을 파견해 통영, 고성, 거제, 여수, 고흥일대에 굴밭을 샅샅이 조사한다. FDA는 통영, 고성, 거제, 여수, 고흥 등의 남해안 일대를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 해역으로 설정, 엄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대단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선진 외국에서 그 청정성을 엄정 조사하여 사들이는 굴이 이곳 남해안의 수하식 굴이며, 국내 소비량의 90% 이상이 이곳에서 공급된다. 한려수도가 한국 최고의 청정해역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통영은 이웃 거제도의 삼성조선과 대우조선 등 국내 굴지의 조선산업의 확장과 함께 고성, 사천 등 부근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조선산업을 유치하고 조선특구지정과 공장부지를 제공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로 공장유치를 계속하고 있다. 전통적 수산도시였던 통영시가 조선산업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통영은 현재 세계100대 조선소에 포함된 성동조선해양(주), SPP조선(주), SLS조선(주), 상호조선(주), (주)21세기조선 등 5개 조선소를 포함해 23 개 조선업체가 있다. 통영은 현재 7년 만에 1,000여 척의 어선을 감축해야 하고, 산업단지 3곳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2. 통영시의 마스터플랜(Master Plan)

2.1 통영시 마스터플랜

남해안 중심도시 통영시는 인구 13만명에 서울의 4배에 달하는 2,267km²에 광활한 바다가 250개의 보석과도 같은 섬들을 안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에 개통한 선로(線路) 길이 1,975m인 국내 최장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가 313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한 폭발적인 인기에 고무되어 통영과 한산도 사이 해상케이블-카도 추진하고 있다.

"관광 통영"과 함께 "예향(藝鄕) 통영"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통영은 소설"토지"의 박경리, 청마 유치환, '꽃의 시인' 김춘수,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등 기라성같은 예술인들을 배출한 예술의 도시이자 한산대첩과 300년 통제영 문화를 잇고 있는 역사의 도시다. 통영시는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해 통영국제음악당(480억원)을 비롯해 박경리기념관(48억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통제영 문화의 정체성을 살려 "이순신의 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 통제영 복원사업(596억원)과 통제영거리 조성(415억원), 한산대첩 이순신광장 조성(432억원), 한산도 통제영테마마을 조성(31억원), 이순신공원 조성(150억원),

거북선 등 군선(軍船)복원사업(145억원)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통영시는 "대한민국 수산1번지" 라는 명성을 살리기 위해, "해양수산도시" 건설도 핵심 추진사항이다. 통영시는 내년 2010년부터 외해 심층(深層)가두리 개발 시험연구사업(14억원)과 참다랑어 양식어장 개발(30억원)을 비롯해 바다목장화사업 확대(120억원), 미륵도 중화항 개발 및 산양읍 다기능 어항개발 사업(100억원)등 수산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국가산업 단지를 확대한 안정·덕포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법송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조선인력 양성 기술교육원" 조기 건립도 추진한다[3][4].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차원에서 228억원을 들여 정량천 복원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종말 처리장 고도화시설, 산양·욕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따뜻한 남쪽나라" 기후 마케팅을 활용한 전지훈련팀 유치에 위해 건설중인 "통영스포츠파크"와 "통영해양스포츠센터"는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 밖에 사랑도 식수원개발사업도 내년에 완공하고, 사랑도 상·하도 연도교 건설사업은 2010년에 착공해 2014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2.2 남해안 관광벨트

관광산업장의 동향은 세계관광기구(WTO)에 의하면, 국제관광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4.1%로, 관광객 수는 2010년 약 10억 명, 2020년 약 16억 명으로 증가하고, 관광수입은 2010년 7천6백만 달러, 2020년에는 2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19.4%, 2020년에는 2조 달러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주요 국제관광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외국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가 불충분하여 관광산업이 저조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찾는 관광객 수는 연 평균 6.5%로 성장했으나, 외국여행을 떠나는 우리나라 관광객 수는 연평균 24.9%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내관광총량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자연친화적·문화체험적 관광을 중시하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이 나타날 전망이다. 국민소득 증가, 주 5일 근무제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교통 이동성 증가 등으로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생태관광(Eco-Tourism)은 갯벌, 호수, 철새, 동굴, 습지, 산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관광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해양관광, 크루즈관광, 생태관광, 자연관광, 모험관광, 문화관광, 테마관광 등이 부상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적합한 관광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곳이 통영이다.

통영시는 한려수도의 보석같은 중핵도시로 역사&문화자원과 미륵도, 한산도, 욕지도, 사랑도, 연화도 등 빼어난 섬과 바다풍경은 '한국의 나폴리'로 격찬을 받고 있다. 통영항 여객터미널에서 한산도 간, 소매물도와 장사도 간, 거제 해금강 구간과 삼덕항과 욕지도, 사랑도, 연화도 구간 등은 한려수도 관광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세병관과 충렬사, 한산도 제승당 등 이순신장군 관련 유적과 요트 경주, 크루즈 여행, 각종 해양스포츠 등과 해양체험과 음식, 일출과 일몰의 경관지 등 해양관광자원과 그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다[5][6].

3. 통영은 조선 최초의 군사계획도시

통영의 삼덕포구, 한산도, 사랑도, 견내량, 적덕, 착량, 걸망포 등은 임진왜란의 승첩(勝捷) 현장이거나 함대의 병참기지, 기항지로서 제 역할을 다한 곳들이다. 전쟁이 끝나면서 지금의 통영 땅 전신(前身)인 두룡포에 경상·전라·충청도 3도의 수군을 관장하는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이 설치되었다. 즉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전란을 겪으면서 국가적으로 건설된 계획적인 군사도시가 곧 통영이다. 그로부터 일제에 의해 통제영이 철폐될 때까지 300여 년간 지속되면서 독특한 해양문화를 형성해 온 셈이다.

통영은 조선 최초의 군사계획도시이자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으로 수군의 총 사령부였다. 두 번째 계획도시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의 정조 때 다산 정약용이 설계한 수원 화성(華城)으로 방어요새이자 자족도시인 조선 최초의 신도시이다. 국보 제 305호인 세병관을 중심으로 영문(營門) 주위의 산 능성을 따라 성곽을 쌓으니 이것이 통영성이다. 성문은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의 사대문과 동암문, 남암문의 2암문(暗門)이 있었으며, 모두 통영성 축성 당시에 세워졌고, 성문의 형태는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虹霓門)이었고, 사대문에는 문루(門樓)가 있었다. 포루(鋪樓)는 통영성을 방비하던 산성중군(山城中軍)의 순찰 및 경비를 위한 군영초소로서 북포루, 동포루, 서포루의 3개소가 있었으며, 북포루는 여황산 정상에 위치했으며, 1993년에 복원되었다. 동포루와 서포루는 각각 동피랑과 서피랑 산정에 있었다. 각 포루는 성곽이 지나가는 산정마다 있었는데 때로는 장수가 여기서 군사를 지휘, 명령하였기 때문에 각각 북장대, 동장대, 서장대라고도 하였다[3].

조선의 통신사선은 기선 3척, 복선 3척, 합계 6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6척 중에서 대선 2척과 중, 소선 각 1척 합계 4척은 통영에서, 중, 소선 각 1척은 경상좌수영에서 건조했다. 건조용 목재는 거제부사와 울포 권관이 책임을 맡아서 거제도 다대(多大)에서 조달하였고, 건조작업은 수군통제사의 지휘하에 전문조선기술자 8명이 주축이 되어 건조한 것이다.

통영은 삼도수군통제영으로 조선 건조 능력과 조선 연관산업의 중심으로 통신사의 선박건조나 각종 도선장과 선원 수급의 거점이었다. 거제도는 가라산, 노자산은 비롯해 선박목재의 공급처였다.

4. 결론

통영시는 이제 조선업의 호황에 힘입어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조선산업의 확장과 도시 기반시설 인프라의 개발로 격동의 시대에 들어섰다.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영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통영의 군사계획도시의 역사와 조선산업의 현황과 미래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다.

남해안 프로젝트는 J-프로젝트와 S-프로젝트 등의 목포 중심의 서남해안 개발전략과, 부산신항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광양항과 광양경제자유구역 등의 허브항만개발전략과, 부산북항 재개발 전략

과 여수EXPO 개최 전략, 통영-거제의 조선산업과 해양-관광개발, 진주-사천의 항공산업과 관광산업개발, 창원-마산의 기계산업과 중공업과 환경·문화도시 전략 등 이미 많은 발전구상과 전략이 난무하고 있다. 과잉개발과 중복 개발, 상호 연계성을 상실한 편중과 무모할 정도의 난무하는 개발계획과 황당한 과잉 비전 제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하고 생태계와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미래지향적 발전구상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다[7][8].

4.1 통영의 장기 비전과 전략

통영은 과거 고성반도의 남단으로 용이 꿈틀거리는 형상이라 두룡포(頭龍浦)라 부리는 곳에 삼도수군통제영을 건설했다. 오늘의 통영은 견내량, 당포만, 죽림만, 원문만, 북신만, 착량 등 포구와 만입이 발달했고, 거제도, 미륵도, 한산도, 용초도, 비진도, 연화도, 옥지도, 사랑도, 소매물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남해의 보석처럼 흩어져 있다. 이 아름다운 경관과 청정해역이 조선산업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화학약품과 독성이 큰 유해물질과 도시확장으로 매립과 해안 절개로 인한 개발의 가속화는 경관과 자연 생태에 치명적인 것이다. 굴과 멸치, 갈치 등 각종 수산물의 보고였던 청정해역과 연안 양식어업의 중심이었던 통영은 이제 수산업은 축소일로에 있고 지역 경제는 수산업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호황산업인 조선산업과 연관 조선기자재산업으로 전환의 과도기에 처해 있다. 지금이야말로 통영의 미래 비전과 발전전략은 무엇인가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발굴해내야 한다.

우선 통영시, 거제군, 고성군 등 3도 시군이 광역권으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광역개발계획은 거제시, 고성군 등 상대적으로 토지용역이 많은 지역 등 균형적인 개발전략의 수립이 용이하다.

둘째, 통영시의 현재 육지지역인 도산면과 광도면 등에 안정국가산업단지, 성동해양조선(주) 등과 도남지구의 21세기조선(주), 삼호조선(주), SPP조선(주) 등이 소재한 외에 조선산업과 개발할 토지용역이 미래 통영의 발전전략에 합당한가? 를 검토해야 한다[9].

셋째, 통영의 관광산업과 수산업은 청정해역 보전과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 보존과 전통문화산업, 역사유적과 작가, 시인, 화가, 전통무용 등 예술과의 시너지효과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무엇인지에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4.2 2012년의 여수EXPO와 남해안 관광벨트

여수시는 2012년의 여수EXPO를 유치해 지역발전은 물론 남해안 자원개발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여수와 고흥은 여수반도와 고흥반도를 두 축으로 돌산도, 금오도, 거문도, 백도, 외나로도, 내나로도, 거금도, 소록도, 금당도 등 아름다운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여수시 삼산면의 거문도와 백도는 자연경관도 수려하며 거문도등대와 영국군 주둔지와 포대 등은 역사·문화자원으로 훌륭하다. 돌산도의 향일암과 나로도의 항공우주기지는 좋은 문화관광자원이다. 여수와 남해도의 가치 ‘남해안 대교’를 조기 착공해 남해의 보물섬인 남해도의 관광자원과 토지용역을 활용할 필요가 크다. 삼천포대교를 거쳐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의 공룡유적은 빼어난 관광자원

이다. 또한 ‘한국의 나폴리’ 통영과 매물도, 거제 해금강은 여수EXPO와 연계시킬 수 있는 남해안의 뛰어난 관광자원이다[10-12].

여수EXPO는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 전남지역의 이순신대교,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는 많이 확충했다. 그러나 엑스포 시설물은 휴점 상태로 활용할 방안을 못 찾고 운영비 등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겨졌다. 남해안 공동 프로젝트와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4].

한려수도와 다도해의 남해안축제는 크루즈와 해양스포츠와 어업과 문화산업이 결합하여, 부산-마산-통영-삼천포-여수-완도-목포를 연결하는 왕복 크루즈와 순환 정기관광유람선의 축제관광과 연계시키고 시너지효과를 살리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여수반도와 남해도의 관광자원의 통합운영은 바람직하다. 진남관의 여수좌수영과 노량해전의 유적지의 연계와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의 역사적 장소를 축제무대화하고, 상주의 해수욕장과 금산을 돌산도의 향일암과 연결하여 일출과 일몰의 명소로 축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

References

- [1] D. R. Lee, "The southern central city day - Tongyeong", Korea Times, **(2009)** October 14.
- [2] M. Heo, "Archipelago globalization project for South Coast Ocean utilizing cultural resources", The 4th Symposium on the south coast development, **(2007)**.
- [3] J. H. Kim, "Urban Growth and Spatial Structure of Tongyeong City", University of Ulsan Press, **(2004)**.
- [4] H. J. Jeon, "Effects of Expo 2012 Yeosu Korea is in the national development", 2012 Yeosu EXPO's meaning Symposium, **(2007)**.
- [5] S. G. Go, "Modern City Mokpo Cultural Historic Spac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4)**.
- [6] S. G. An, "The southern maritime era of cultural policy and cooperation", The 4th Symposium on the south coast development, **(2007)**.
- [7] J. H. Woo, "Characteristics of younghonam festivals and cooperation", YoungHonam civilian council workshop, Forum sinsago, **(2005)**.
- [8] J. H. Woo, "Busan New Port and Busan North Port Development Strategy", Bright Future Civic Forum 4th Seminar, **(2007)**.
- [9] J. H. Woo, "Find the Nam River and Jinjuseong: 2nd Land Journey, Life Regiment Nakdong 21", Land and Environment Laboratory, **(2007)**.
- [10] J. I. Kim, "2000 Li Road of South Coast, Guangzhou Chonnam Development Institute", Seoul: Book Publishing Seonha Publishing, **(2002)**.
- [11] J. Kim, "Fluctuations in the fishing communities and marine ecology", Seoul: Minsokwon, **(2004)**.
- [12] D. J. Sin, "Marine Tourism Development", Seoul: Daewangsa, **(2005)**.